

가스공사, 계통압력유지 주배관공사 추진

울진~영덕, 영종~교하, 김해~장림구간
하반기 공사 발주, 2013년~2014년 완공

울진~영덕, 영종~교하, 김해~장림 구간의 천연가스 계통압력을 위한 주배관 공사가 올해 하반기 발주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들 3개 지역 주배관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3월말 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을 완료했다.

울진~영덕 주배관 건설공사의 경우 2013년 말 삼척기지 배관과 연결을 앞두고 울산, 장림 등 영남권지역의 계통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주배관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설비규모는 30인치 주배관 69km 및 7개 관리소(차단관리소 3개소, 블록밸브 4개소)이며 예상사업비는 1,551억원이다. 올해 8월 중순경 공사 발주가 이뤄지며 2013년 11월 준공할 계획이다.

영종~교하 주배관 건설공사는 2014년 양주, 포천 등 수도권 관말지역의 공급압력 저하에 대비한 계통압력 유지를 위해 추진된다.

설비규모는 해저 6.9km, 하저 1.8km 포함해 49

km에 달하며 5개 관리소(정압관리소 1개소, 차단관리소 1개소, 블록밸브 3개소)가 포함된다. 예상사업비는 2,083억원으로 올해 11월 공사발주, 2014년 11월 준공예정이다.

김포·검단의 경우 2013년 12월 가스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해~장림 주배관 건설공사는 부산시 및 부산복합화력 등 대규모 수요처에 단선 배관으로 장기간 공급함에 따른 계통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저 2.8km, 하저 1.0km 포함해 27km를 건설하며 관리소는 3개소(차단관리소 1개소, 블록밸브 2개소)이다. 올해 11월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며 2014년 11월 준공예정이다. 예상사업비는 1,099억원이다.

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는 “3개 지역에 대한 주배관 공사가 완료되면 계통압력 유지 및 공급안정성이 큰 폭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